

날짜 2024-12-08(D1)                      본문    녹23:50-56  
번호 2573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98 '예수님 오소서'

시작    주기도  
찬송    찬98 '예수님 오소서'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녹23:50-56  
설교    '아리마대 요셉, 세마포, 무덤, 향품과 향유'의 속뜻  
찬송    찬100, '미리암과 여인들이'  
봉헌    변준석 형제  
광고

- ① 변환(pdf → hwp) 및 번역, 블로그 작업  
    AC.591-595, 창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  
    AC.2권.창10-17.1114-2134.hwp

## 헌금기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여섯 번째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 역시 주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온 여인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사용된 워딩들의 특별한 의미, 곧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무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등의 속뜻과 사이사이 필요한 배경 설명으로 오늘 본문의 모든 걸 풍성히 풀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는 것처럼, 또는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주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싸는 것은 내적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주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은 자연적 진리를 가지고 육신의 욕구들을 다스림으로써 말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신 권면을 참으로 마음으로 받으며, 그러나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오니, 오, 주님, 거듭 저를 도우사 제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억,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힘을 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